

A study on the behavior of adolescence's music listening

Seo Seung Mi, Love'n Family Music Therapy Clinic

This research was to study the behavior of listening music, music preference, meaning and role of music. The interviewees were 158 male/female students of high school in second level. This research had a interview which is composed with 7 multiple choice-questions and 1 short answer-question.

In result, in the question of 'The average time of listening music', the most students(64, 41.8%) answered '1~2hours', the secondary, '2~3hours' which was 32.(20.9%) In the next question, 'The preference of music genre', 87students(56.8%) answered 'Korean pop and rock', 'American pop' was 11.1% each. Regarding 'The favorite mood of music', 50.3% of students answered 'Mellow songs, 24.8% of students answered 'Jaunty songs'.

Regarding 'The social factor of listening music', more than half students(56.7%) agreed that friends or something like that may affect their music preference. Likewise, 51.6% agreed that their temper or character may affect their music preference. They answered that they enjoy the music usually when they take a rest(30.1%), when in moving(24.3%).

Lastly, it said 'The meaning of music' is mostly 'Getting rid of stress and Refresh'(25.1%). And 'Calmness', 'Comfort' was 21.8%. The music especially to students means 'Emotional exit'. The music which can enable them to express their feelings is related with feeling and emotion deeply. And emotional factors like stress, depression, anxiety becomes the main reason of accepting the music meaningfully.

In conclusion, This research says that they experience positive feelings and express emotions through music which enables them to understand fully their feelings and emotions.

**[keyword] Adolescence, music preference, behavior of music listening,
meaning and role of music.**

청소년의 음악 감상 행동에 관한 연구

서승미, 가족사랑음악치료센터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음악 감상 행동과 선호도 요인 및 음악이 갖는 의미와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 대상은 서울시내 남녀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들로, 총 158명이 참여하였다. 연구는 설문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설문은 7개의 객관식 문항과 1개의 서술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객관식 문항은 SPSS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단순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서술식 문항은 응답자가 기입한 내용을 분석하고 주요 단어를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의 하루 평균 음악 감상시간은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가 64명(41.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2시간 이상 3시간 이내가 3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0.9%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선호하는 음악 장르는 대중가요가 8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6.8%로 가장 높았고, 락과 헤비메탈, POP이 각각11.1%로 대중가요 다음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선호하는 음악의 분위기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악이 50.3%, 빠르고 신나는 음악이 24.8%로 나타났다. 음악 선호도 있어서 사회적 요인 즉 또래 친구의 영향 정도는 '그렇다'가 56.7%로 과반수이상의 학생들이 자신의 음악 선호에 또래 친구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음악 선호와 개인적 요인간의 관련 정도 역시 51.6%가 '그렇다'로 대답한 것으로 음악 선호는 개인적 요인 즉 자신의 성격, 성향, 기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음악 감상의 일상적 사용에 대해 청소년은 휴식할 때(30.1%) 음악을 가장 많이 듣는다고 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이동할 때(24.3%)가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음악 감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기분의 영향으로는 30.8%가 스트레스가 쌓일 때 음악 감상을 원한다고 하였고, 그 다음으로 우울(27.7%), 외로움(3.7%) 등 청소년에게 음악 감상은 편안함과 스트레스의 경감을 가져다주고, 청소년의 정서에 긍정적인 자극제가 됨을 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음악의 의미는 스트레스 해소 및 기분전환(25.1%)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평온, 위안(21.8%)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청소년에게 음악은 정서적인 탈출구와 같은 역할을 하고 기분 및 정서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감정을 자극하여 표출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과중한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은 음악을 더욱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음악적 행동과 이들에게 음악이 갖는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는 데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은 음악 감상을 통해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며, 결국 자신의 감정에 대한 통찰력을 보다 폭 넓게 이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핵심어] 청소년, 음악감상 행동, 음악선호도, 음악이 갖는 의미와 역할

급격한 대중문화의 발달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대중음악의 자극 앞에 노출되어 있다. 청소년들은 각종 대중매체와 음반시장을 통해 대중음악을 수용하고, 이러한 대중음악은 청소년의 삶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다. 청소년들은 그들만의 문화집단을 형성하고 그 집단 내에서 문화적 실천을 하며 그들만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이러한 청소년의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청소년 문화에서 대중음악은 대중문화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실상, 청소년 문화의 흐름과 변화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중음악은 클래식 음악에 비해 호응도가 높은 반면, 빠르게 교체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대중음악은 직선적이고 즉흥적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힘이 강해서 음악을 듣는 감상자에게 보다 민감하게 와 닿게 하는 힘이 있다(권승룡, 2002). 대중음악의 다양한 장르 중 특히 대중가요는 청소년층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함께 청소년의 삶에서 대중가요의 비중은 그 어느 계층에 비해서 큰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학업 이외의 여가시간을 갖지 못하는 청소년의 입시에 대한 중압감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접촉하고 찾을 수 있는 출구가 대중음악이기 때문이다. 한영예(1982)의 「심야 음악방송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보면 순수음악에 대한 선호도가 15%, 비 순수음악에 대한 선호도가 85%라고 보고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순수음악 보다는 비 순수음악에 더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강경선(1988), 박미영(1996), 이호경(1995)의 연구에서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즐겨 듣는 음악은 대중음악이고 그 중 팝송과 대중가요를 가장 많이 듣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Rogers(1957)는 학년이 높은 수록 클래식 음악에 대한 선호가 감소하고 하나의 음악 장르만을 더욱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하게 Meadow(1970)의 연구에서도 학년이 높을수록 락 음악과 같은 대중음악에 대한 선호가 높아짐을 보고하였다. 권승룡(2002)은 「대중음악이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청소년이 선호하는 대중음악 장르는 대중가요가 59%, 팝송이 11%, 재즈가 2%, 샹송이 2%라고 보고하였고, 여학생은 댄스음악에 남학생은 영화음악에 높은 선호를 보였다. 음악의 여러 장르 중 여학생은 락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고 하였고, 대중가요에 대한 높은 선호는 '부르기가 쉬워서'라는 응답이 50.5%로 가장 높았다. 김웅대(2002)는 청소년들의 음악에 대한 선호는 일반적으로 외국의 대중음악이나 한국의 대중음악을 가장 선호한다고 하였고, 대부분의 이유로는 가수들과 청소년 간에 자연스러운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음악선호도는 대중음악이 압도적이고, 이는 대중매체, 대중문화, 청소년 문화, 선호음악 간에는 유기적 관계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양한 음악적 요소는 청소년의 음악선호도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 템포, 소리크기, 리듬에 따라 서로 다른 음악선호도를 나타낸다. 우선, 템포에 대한 청소년의 음악 선호도 연구로 김인경과 곽금주(1998)는 1997년 7월부터 8월 동안 라디오와 방송에서 가장 유행했던 곡 18곡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중 템포에 대한 분석 결과 14곡이 빠른 템포의 곡으로 방송매

체의 청취자와 시청자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청소년들이 빠른 템포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김연정(2000)은 「템포와 소리크기를 중심으로 한 자극성음악과 침체성음악에 대한 청소년의 선호도」 조사에서 템포의 대한 선호도는 대상자 160명 중 57.5%인 92명이 빠른 음악을 선호하고 42.5%인 68명이 느린 음악을 선호한다고 보고하였다. 성별차이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빠른 템포를 선호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고, 또한 소리크기에 대한 선호도는 응답자의 78.8%가 큰 소리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권승룡(2002)은 청소년이 선호하는 대중음악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음악은 전체 61.8%가 빠른 템포의 댄스음악이고, 여학생이 댄스음악에 대한 선호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이 선호하는 대중가요 형식에 대해 연구한 이호경(1995)은 빠른 템포의 댄스음악이 청소년의 음악선호에 우세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Getz(1966), LeBlanc와 McCrary(1983)의 템포에 대한 선호도 연구에서 청소년과 아동들은 빠른 속도와 경쾌한 리듬을 선호한다고 보고하였다.

Flower(1981)는 학생들과 성인이 음악적 패턴에 대한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언급하였는데, 성인은 멜로디의 고저에 대해 더욱 자극을 받지만 젊은 학생들은 음색, 리듬, 음악외적 환경에 대해 더 자극을 받아 그들의 음악 선호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이 선호하는 음악적 요소를 정리해보면, 빠른 템포, 큰 소리, 빠르고 경쾌한 리듬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음악이 청소년의 내적 에너지를 표출해 주는 도구가 되고, 그 중 템포, 소리크기, 리듬은 이러한 내적 에너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공감하며 또한 표현하는 매개체가 됨을 알 수 있다.

Larson와 Kubey(1983)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에 몰두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음악 감상은 주로 개인적으로 이루어짐을 관찰하였다. 즉, 공공 장소에서 듣는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음악 감상 장소는 자신 방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본인 소유의 감상 여건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고, 이는 청소년의 여가 생활 중 음악 감상은 본인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쉽게 접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음악 감상 행동은 개인의 필요 즉, 감상을 하게 하는 행동의 동기에 기인한다. 청소년의 음악 감상 행동에 대한 Gantz(197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음악을 듣는 것은 긴장을 풀게 하고 시간을 보내게 하며, 지루함을 없애주기 때문에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 음악 감상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Roe(1985)는 감상의 동기에 대해 좀 더 광범위한 목록을 제시하였는데, 음악은 긴장을 이완시키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며 또한 외로움을 감소시키고, 침묵을 채워주고, 시간이 보다 빨리 가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더불어 음악은 신체의 움직임을 유발하고, 내면의 감정을 표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음악 감상은 다양한 장르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사는 Berry(1990)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랩 음악에 대한 영향력을 조사하였는데, 청소년들이 랩을 좋아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은 랩의 비트의 영향이라 하

였다. 비트는 랩 안에 내재되어 있는 고정적인 리듬을 의미한다. 이 외 단지 랩이 있다는 것, 또한 랩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기 때문에 감상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랩 음악이 청소년에게 주는 영향력, 그리고 랩을 통한 청소년들이 얻는 만족감간의 상호작용은 음악 감상의 동기를 더욱 증가시키는 이유로 작용한다.

음악 감상을 하는데 있어 감상자에게 일어나는 음악적 경험 또는 음악의 역할에 대해 Gantz(1978)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음악이 성적 활동을 자극하거나 그들 자신의 문제들을 다루는 것을 도와준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Leming(1987)는 노래가 감상자의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였다. 13세는 23%가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고 16세의 70%는 한 가지 혹은 문제를 다룰 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음악에 대한 청소년의 긍정적 반응 즉, 청소년들이 “왜 음악을 좋아하나?” 라는 기본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 조사들에 있어서 어떠한 일관성을 찾아보기 힘든 것은 개인과 상황의 변수가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Roe(1985), Brown(1986)는 음악이 분위기 상승의 능력과 연관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에 반해 Gantz(1978)가 보고한 연구결과는 분위기 상승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또한 Sun과 Lull(1978)는 완전히 분위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와 유사하게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음악의 지각 능력은 Brown(1986)의 연구결과는 이를 지지하지만, Gantz(1978)의 조사에서는 다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음악의 주된 역할은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능력 즉, 주위환기 능력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할 때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음악은 기분 전환의 욕구가 가장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다룬 심리·정서적인 측면 이외에 음악을 즐기는데 있어서 보다 본질적인 면, 즉 생리적인 자극에 대한 연구는 Cautor와 Zillmann(1973)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는데, 락 음악에 노출되기 전 대상사와 비 음악적 수단으로 인해 각성되었거나, 각성되지 않은 두 실험군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음악에 대한 반응은 각성 전의 부재보다는 각성 후에 좀 더 격렬하였다. 다시 말해 비음악적 수단으로 각성 된 후 음악적 자극이 주어졌을 때 청소년들은 음악에 대한 즐김과 흥분이 더욱 고조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청소년들의 음악에 대한 반응은 음악 내의 자극 이외 시각적 이미지에 의해 유발되는 자극에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 Zillmann와 Mundorf(1987)는 흥분과 각성을 유도하는 음악을 조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음악 외적인 자극으로 부가적인 각성을 자극하기 위해 성과 폭력의 이미지를 담은 락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였다. 이러한 시각적 이미지에 청소년들은 각성을 경험하였는데, 그들은 음악을 좀 더 창조적이고 황홀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높았고 결과적으로 감상 효과를 향상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음악 감상의 영향에 대한 국내연구로, 권승룡(2002)는 대중음악이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중가요를 들을 때 생기는 정서적 변화로 ‘신이 나며 의욕이 생긴다’가

59.7%로 가장 높았다. 김응대(2002)는 청소년들이 대중음악을 통해 정서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고하였고, 조영분(1987)은 대중가요를 감상할 때의 심정변화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한 결과 46.5%가 “기분이 명랑해지고 신이난다”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의 음악적 행동은 상황과 그들의 필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음악이 청소년의 행동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발달 단계와 심리적 특성, 음악선호의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청소년의 선호하는 음악, 음악 감상 행동의 사회적, 개인적, 상황적 요인, 음악의 일상적 사용, 음악이 갖는 의미를 감상자의 입장에서 조사함으로써 청소년의 음악적 행동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음악 감상 행동이 갖는 의미를 연구하기 위하여 서울시내 E 고등학교 여학생 69명과 S 고등학교 남학생 89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총 158명은 모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하루 평균 음악 감상 시간, 선호하는 음악 장르와 음악의 분위기, 음악선호도의 사회적, 개인적, 상황적 요인, 음악의 일상적 사용, 음악 감상의 의미 등을 묻는 설문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대상자 15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조사하여 158명을 수거, 그 중 유효한 153개를 대상으로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하루 평균 음악 감상 시간

청소년의 하루 평균 음악 감상 시간은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64명(41.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시간 이상 3시간 이내는 32명(20.9%), 1시간 이내가 29명(18.9%), 3시간 이상 4시간 이내는 17명(11.1%), 4시간 이상은 11명(7.1%)로 나타났다.

<표1>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음악 감상시간

음악 감상 시간	인원수(명)		합	%
	남	여		
1시간 이내	14	15	29	18.9
1~2시간 이내	39	25	64	41.8
2~3시간 이내	14	18	32	20.9
3~4시간 이내	11	6	17	11.1
4시간 이상	9	2	11	7.1
총계	88	65	153	100

학생들의 하루평균 음악 감상 시간은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가 41.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2시간 이상 3시간 이내가 20.9%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하루의 음악 감상의 시간으로 3시간 이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여학생들의 경우 한 시간 이내라고 답한 사람이 남학생보다 다소 많아 여학생들의 음악 사용시간이 남학생들의 그것보다 낮음을 알 수 있었다.

2. 선호하는 음악장르

청소년이 선호하는 음악 장르로는 대중가요가 87명(56.8%)으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했으며 POP과 락/헤비메탈 등이 각각 17명(11.1%)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CCM과 일본 대중음악인 J-POP이 각각 7명(4.5%), 클래식과 뉴에이지, 기타가 6명(3.9%)으로 나타났다.

<표2>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음악장르

장르	인원수(명)		합	%
	남	여		
대중가요	49	38	87	56.8
POP	14	8	22	11.1
락/헤비메탈	9	3	12	11.1
CCM	5	4	9	4.5
J-POP	4	2	6	4.5
클래식	3	2	5	3.9
뉴에이지	1	5	6	3.9
기타	1	4	5	3.9
총계	88	65	153	100

3. 선호하는 음악의 분위기(mood)

남녀학생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음악의 분위기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악이 77명(50.3%)으로 가장 많았고, 빠르고 신나는 음악이 38명(24.8%)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비트가 있는 음악이 15명(9.8%), 강렬하고 자극적인 음악 역시 15명(9.8%)으로 나타났다. 남녀차이로는 락/헤비메탈은 남학생그룹에서 선호도가 더욱 높았으며 여학생그룹에선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3> 선호하는 음악의 분위기

선호 분위기	인원수(명)		합	%
	남	여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악	43	34	77	50.3
빠르고 신나는 음악	19	19	38	24.8
비트가 있는 음악	13	6	19	9.8
강렬하고 자극적인	9	2	11	9.8
기타	3	5	8	3.2
총계	88	65	153	100

4. 음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의 정도

학생들의 음악선호도에 있어서의 사회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답변에 그렇다 이상이 56.7%로 과반수이상의 학생들이 '자신의 음악 선호도가 친구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답은 14.2%에 머물러, 학생들의 음악 선호도에 있어 친구 등의 외부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4> 음악 선호도의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정도	인원수(명)		합	%
	남	여		
매우 그렇다	5	6	11	5.8
그렇다	45	33	78	50.9
보통이다	26	16	42	27.4
그렇지 않다	6	7	12	8.4
전혀 그렇지 않다	5	4	9	5.8
총계	88	65	153	100

5. 음악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의 정도

남녀학생들은 모두 ‘음악이 개인의 성격, 성향 혹은 기질 등과 관계가 있다’(62.0%)고 말한 것으로 나타나 음악선호도의 개인적 요인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그렇지 않다’(5.8%)와 ‘전혀 그렇지 않다’(5.2%)는 답은 10%안팎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5> 음악선호도의 개인적 요인

개인적 요인 정도	인원수(명)		합	%
	남	여		
매우 그렇다	7	9	16	10.4
그렇다	48	31	79	51.6
보통이다	25	16	41	26.7
그렇지 않다	3	6	9	5.8
전혀 그렇지 않다	4	4	8	5.2
총계	88	65	153	100

6. 일상적인 음악의 사용

남녀학생들은 공통적으로 ‘휴식할 때’(30.1%) 가장 음악을 많이 듣는다고 답했다. 이어 ‘이동할 때’(24.3%), ‘수면 전후에’(20.4%) 음악을 듣는다고 말했다. 반면 ‘공부할 때/책 읽을 때’(13.9%), ‘청소/일할 때’(5.7%), ‘운동할 때’(2.8%) 등의 응답은 적어 대체로 어떤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음악을 듣는 경우보다 음악 감상만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음악을 더욱 찾게 됨을 알 수 있다.

<표6> 음악의 일상적 사용

일상적 사용	응답수		합	%
	남	여		
휴식할 때	50	34	84	30.1
이동할 때	44	24	68	24.3
수면 전후에	31	26	57	20.4
공부할 때, 책 읽을 때	25	14	39	13.9
청소할 때, 일할 때	6	10	16	5.7
운동할 때	4	4	8	2.8
기타	4	3	7	2.5
총계	164	115	279	100

7. 음악 감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

음악 감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으로 응답자 중 70명(30.8%)이 스트레스가 쌓일 때 음악 감상을 원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우울할 때가 63명(27.7%), 외로움을 느낄 때가 37명(16.2%), 기쁠 때가 32명(14.0%), 화가 날 때가 14명(6.1%), 기타 11명(4.8%)으로 나타났다.

<표7> 음악 감상의 상황적 요인

상황적 요인	응답수		합	%
	남	여		
스트레스가 쌓일 때	42	28	70	30.8
우울할 때	34	29	53	27.7
외로움을 느낄 때	20	17	37	16.2
기쁠 때	13	19	32	14.0
화가 날 때	7	7	14	6.1
기타	7	4	11	4.8
합	123	104	227	100

남녀학생들은 공통적으로 ‘화가 날 때’(6.1%)나 ‘기쁠 때’(14.0%)처럼 감정이 극적일 때 보다는 주로 ‘스트레스가 쌓일 때’(30.8%)나 ‘우울할 때’(27.7%), ‘외로움을 느낄 때’(16.2%) 음악을 듣는다고 답해 주로 감정의 의존적 상황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학생들의 경우 ‘기쁠 때’(18.2%)가 ‘외로움을 느낄 때’(16.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남학생과의 차이를 나타냈다.

8. 음악감상 동기의 내용 분석

본 문항은 응답자가 직접 기술한 주관식 내용을 토대로 주제어가 되는 단어를 발췌하고 이를 다시 범주화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대한 범주는 다음과 같다.

- 1) **평온·위안** : 음악은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을 가지게 하고, 나에게 위로와 위안을 준다.
- 2) **스트레스 해소 및 기분전환** : 음악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현재 나의 기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 3) **동기부여, 의욕상승** : 음악을 들으면 내적인 힘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되어 의욕이 높아짐으로 나의 활력소가 된다.
- 4) **지나간 사건들의 회고** : 음악은 지나간 옛 일을 회상하고 그 때 경험했던 느낌이나 감정을 기억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 5) 자아성찰 : 음악은 나를 비취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고, 생각을 정리하게 해주며 또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6) 흥분·전율 : 음악을 들을 때 흥분되는 느낌을 경험하거나 전율이 전해진다.
- 7) 기쁨·즐거움의 원천 : 음악은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다.
- 8) 눈물·카타르시스 : 음악을 들으면 내면의 감정 증폭되고, 연상되는 되는 감정으로 인해 눈물이 나오며, 감정이 정화되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 9) 무료함 해결 : 음악은 따분한 시간을 보낼 때 유익하다.
- 10) 감정표현 : 음악은 현재 나의 감정을 표현해줄 수 있다.
- 11) 감정조절 : 음악은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준다.
- 12) 존재감 확인 : 음악은 내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확인시켜준다.

<표 8> 음악감상 행동의 의미

음악의 의미	응답수		합	%
	남	여		
스트레스 해소 및 기분전환	27	26	53	25.1
평온, 위안	28	18	46	21.8
무료함 해결	8	11	19	9.0
존재감 확인	9	7	16	7.6
동기부여, 의욕상승	6	8	14	6.6
자아성찰	6	6	12	5.7
흥분, 전율	6	5	11	5.2
감정조절	4	5	9	4.3
눈물, 카타르시스의 경험	4	5	9	4.3
기쁨, 즐거움의 원천	5	2	7	3.3
지나간 사건들의 회고	4	3	7	3.3
감정표현	2	4	6	2.8
기타	1	1	2	0.9
합	110	101	211	100

음악의 의미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해소 및 기분전환 이 2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평온과 위안이 21.8%, 무료함 해결이 9.0%, 존재감 확인이 7.6%, 동기부여와 의욕상승이 6.6%, 자아성찰이 5.7%, 흥분, 전율이 5.2%, 감정조절, 눈물과 카타르시스가 동일하게 4.3%, 기쁨, 즐거움의 원천과 지나간 사건들의 회고가 각각 3.3%, 감정표현이 2.8%, 기타가 0.9%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음악감상 행동과 의미를 이해하고 음악이 청소년에게 어떠한 의미와 역할을 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 것이었다. 연구 대상은 서울시내 소재 남녀고등학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들로 총 158명이 참여하였다.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하루 평균 음악 감상시간은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가 가장 많았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음악 감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선호하는 음악 장르로는 여러 선행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로 대중가요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락과 헤비메탈, POP 또한 대중가요 다음으로 청소년이 선호하는 장르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선호하는 음악의 분위기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보인 '신나고 빠른 음악'과는 달리,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악'이 가장 많은 선호를 나타냈다. 이는 근래에 나오는 대중가요 중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악'이 전형적인 발라드음악이라기 보다는 현대적인 감각 즉, 리듬과 선율 및 편곡 등을 보다 더 세련되게 만든 곡이 많아 청소년들이 높은 선호를 나타낸다고 보인다. 또한 가수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는데, 조용하고 부드러운 노래를 독특한 음색을 지닌 가수가 부르면 음악선호도는 더욱 상승한다. 더 나아가 이 결과는 앞으로 제시할 음악감상 행동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데, 많은 청소년들은 음악 감상을 통해 평온과 위로, 감정적인 지지를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은 음악을 더욱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선호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음악 선호도 있어서 사회적 요인 즉 또래 친구의 영향 정도는 자신의 음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 개인의 음악적 선호는 그들이 속한 또래집단에 큰 영향을 받고, 동질 그룹에 대한 소속을 통해 정서적인 만족감을 얻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 음악 선호는 개인적 요인 즉 자신의 성격, 성향, 기질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고, 음악의 장르와 선호하는 음악의 분위기는 감상자의 성격, 성향 등에 영향을 주어 이는 개인만의 다른 음악선호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음악 감상의 일상적 사용에 대해 청소년은 휴식할 때와 이동할 때 음악을 가장 많이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 감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기분의 영향으로는 스트레스가 쌓일 때 음악 감상을 원한다고 나타났고, 우울할 때, 외로움을 느낄 때 등 청소년에게 음악 감상은 편안함과 스트레스의 경감을 가져다주고, 청소년의 정서에 긍정적인 자극제가 됨을 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끝으로 음악은 '스트레스 해소 및 기분전환'의 의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평온, 위안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청소년은 음악감상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경험을 하고, 보다 깊은 감정과 만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의 과중한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인 특성이 음악 감상을 유도하고, 음악을 더욱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중요한 이유가 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음악적 행동을 이해하고 음악이 갖는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었다. 크게 내용을 구분하면 음악의 일상적인 사용, 선호하는 음악, 음악 선호에 미치는 요인들, 음악의 의미와 역할로 나눌 수 있다. 청소년은 자신이 휴식을 취할 때 음악을 가장 많이 듣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음악이 평온과 위안을 주고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주는 의미가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음악적 욕구에 기인하며 이는, 음악 감상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음악은 스트레스가 쌓일 때 가장 많이 듣기 원한다는 결과를 볼 때, 청소년들의 과도한 스트레스가 음악 감상을 더욱 유도함을 알 수 있다.

음악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에 대해 청소년은 또래 친구들의 영향이 자신의 음악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는 음악 선호와 사회적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다루었던 선행연구(Frith, 1981; Zillmann & Bhatia, 1989; LeBlanc, 1982) 결과들을 지지해 주고 있다.

음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에 대해 청소년은 자신의 성격, 성향, 기질이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개인적 요인이 음악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Robinson, 1996; Hansen & Hansen 1990; Arnett, 1991; Bleich, 1991; Glasgow, Catier, Wilson, 1985; Payne, 1980; Hen & Hansen, 1990)를 지지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있어 음악이 갖는 의미는 매우 다양하며 특히 음악은 이들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음악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을 긍정적인 정서로 이끌 수 있으며,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음악을 통해 위안을 받고, 감정을 증폭시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며, 자신의 감정을 음악 안에서 느끼고 표현하는 경험을 한다.

음악은 상징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하여 상대방과 교류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음악은 청소년들에게 평소 표현하지 못한 생각이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적절한 자신의 욕구와 요구를 방출하는 배출구가 된다. 이러한 음악이 갖는 기능은 청소년의 음악 감상을 더욱 의미 있게 하는 요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정서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적 매개체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음악 감상 행동이 갖는 의미를 13개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고, 이는 청소년의 음악적 행동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청소년의 필요 영역을 아는 동시에 음악이 청소년의 정서에 미치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음악 선호의 개인적, 사회적, 상황적 요인에 따른 장르와 음악의 분위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음악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음악적인 요인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성향에 따른 선호하는 음악의 장르와 음악적 분위기, 음악적 요소에 관한 연구, 둘째,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으로 친구 이외 교육과 사회화와 관련된 연구, 셋째, 개인의 기분에 따라 선호하는 음악의 분위기를 비롯해 보다 세부적인 음악의 요소 간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 넷째, 음악의 의미에 대한 연구와 함께, 어떤 자극이 개인적으로 더욱 음악을 의미 있게 하는가에 관한 요인의 분석 연구를 제언한다.

참고 문헌

- 강은경 (2003). 청소년이 선호하는 음악적 요소와 공격성간의 관련성 연구. 석사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강창혁 (1986).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비행문제의 대처법. 학생생활연구 제 8집.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권승룡(2002). 대중음악이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미치는 영향분석. 석사위논문, 관동대학교.
- 김연정 (2000). 템포와 소리크기를 중심으로 한 자극성음악과 침체성 음악에 대한 청소년의 선호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Berry, V.T. (1990). Rap Music, self-concept and low income black adolescents. *Popular Music and Society*, 14(3), 89-107
- Gantz, W., Gartenberg, H. M., Pearson, M. L., and Shiller, S. O. (1978). Gratification and expectation associated with pop music among adolescents. *Popular Music and Society*, 6, 81-9
- LeBlanc, A. (1982). An interactive theory of music preference. *Journal of Music Therapy*, 19(1), 28-45.
- Leming, J. S. (1987). Rock music and the socialization of moral values in early adolescence. *Youth and Society*, 18(4), 363-83.
- Zillmann, D. and Bhatia, A. (1989). Effects of associating with musical genres on heterosexual attraction. *Communication Research*, 16(2), 263-88.